

“국제적 망신” “국민포기 정권”...여야, 日오염수 난타전

국힘 “국제기구 대표 모욕 국적 추락” 민주 이순신 장군 그림 내걸고 공세 해양투기 저지 의원단 항의 방일길

1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여야의 비난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면담 및 의원단 방일을 놓고 ‘국제적 망신’, ‘국적 추락’이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 이순신 장군 그림을 내걸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강화 방안 논의차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정중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아예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국적을 추락시키는 무례한 행동들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곰곰이 되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비상식적 억지와 논리적 모순이 우리 국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같은 방식으로 국제기구 대표를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그로서 사무총장의 한숨이 국격에 금이 가는 소리로 들렸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이날 일본 방문길에 오른 것을 거론, “민주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처해 장기적으로 국격을 해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고 꼬아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그로서 사무총장에게 욕설하는 시위대나 면담 요청해놓고 면전에서 억지 부리는 민주당이나 국제 망신에는 초록이 동색이었다”며 “운동권 시절 승세를 버리지 못한 채 수준 이하의 정치공세를 하는 모습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실에 이순신 장군의 그림을

내걸고 공세를 이어갔다. 회의실 배경을 가득 메운 그림 속에는 푸른 바다 한가운데에 이순신 장군이 서 있고, ‘국민안전 수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는 일본 땅에 묻으라는 게 제 주장”이라며 “일본에서 지불할 비용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중 주입 등 다른 방안이 있는데도 처리 비용이 훨씬 덜 들어가는 해양 방류를 선택해 우리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전날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를 면담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박광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로서 사무총장은 ‘수십 년 동안 일본에 상주하며 검증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며 “오히려 수십년간 문제가 있다는 말로 들렸다”고 언급했다.

대책위 소속으로 전날 면담에 참석했던 양이원영 의원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그로서 사무총장에게 ‘방류 정당성에 대한 책임을 일본 정부에 넘기면 어떻게 하나’라고 물었더니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그로서 사무총장을 비롯한 IAEA의 태도가 무책임하다는 점을 우회로 지적한 셈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경청하지 않을 경우 정권 차원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두둔하면 국민 안전을 책임질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포기한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에는 부산시장 주최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대회를 여는 등 여론전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보름째 단식 중인 우원식 의원을 찾아가 단식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위해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출국전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힘과 억제력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한 평화”

나토 정상회의 출국 AP 인터뷰 “북핵 고도화 저지 국제공조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북한 핵 관련해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라고 밝혔다.

이날 보도된 AP통신 서면인터뷰 및 대통령실이 발췌·배포한 발인 원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같이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AP 인터뷰는 오는 11~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의 참석을 앞두고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북한 핵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의지가 더 강

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며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과 함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 대통령으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해 진행한 연설에서도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차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별도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안보 공약,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와 같은 주제를 놓고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할 “여러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양자 회담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9일에 따라 지난 4월 윤 대통령 국민 방미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한 이행 조치 등 후속 사항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은 2년 연속으로, 세계 최대 군사 동맹과 결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한국 지도자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작년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AP는 아시아 국가들과 나토 밀착을 두고 “아시아만 나토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경계심이 북한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나토 지도자들과 북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한전 전직원 “태양광 사업 안한다” 서약서

감사원 감사 속 ‘비리 근절’ 표명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전력 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했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2주간 한전의 휴·정직자를 제외한 약 2만 3000명의 전 직원은 ‘검정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에 서명했다.

한전은 “공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중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 직원 대상 서약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를 진행해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태양광 보조금 등을 부당 수령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이 가운데 감사원은 한전 등 에너지 유관 기관 8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명을 확인해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태양광 비리·비위 조사의 칼끝이 한전으로 향하자, 전제 임직원 서약서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이해충돌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2.9%p 하락 39.1%

리얼미터...3주만에 30%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간의 상승세를 멈추고 3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3~7일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30명을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9%포인트(p) 하락한 39.1%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6월 셋째주부터 상승해 직전 조사인 6월 다섯째주 42.0%를 기록했었다.

윤 대통령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9%p 오른 58.0%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1.6%p ↑), 광주·전라(1.0%p ↑), 20대(1.1%p ↑) 등에서 상승했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9.8%p ↑), 60대(5.2%p ↑), 보수층(5.8%p ↑), 진보층(2.2%p ↑), 무직/은퇴/기타(8.7%p ↑) 등에서 주로 올랐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3.1%였다. /연합뉴스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 백신 냉장고 도입 |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